

지 상 범 석

# 탐욕 절제하지 못한 탓

“공부하지 않는다면 끓는 쇠물 먹을지언정  
절대로 한톨의 쌀도 먹지 말라”

지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소는 잡히지는 않고 점점 멀리 멀리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쉬지않고 계속해서 정진하다보면 번뇌는 하나하나 소멸되고 결국에는 검은 황소의 고삐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삐를 잡았다고 절대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번뇌란 이 높은 기뢰만 있으면 일어나려고 항상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고삐를 꼭잡고 검은 황소를 묵묵히게 해야 비로소 검은소가 번뇌를 벗어 버리고 하얀소가 되는 것입니다.

붉은 황소가 검은소가 되고 하얀소가 되어도 번뇌는 없어지지 않고 또다시 호랑이 란 새로운 번뇌가 다시 나타나 돌아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렸다고 생각한 이

이러한 자만 속에 빠져버리면 소(번뇌)는 다시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비록 깨달음을 증득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선정삼매에 들어 정진해야 합니다. 선정삼매에 들면 모든 분별심이 끊어지고 동심으로 돌아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나중에는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율을 지켜야 선정에 드는 것이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웅맹정진한다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참선 뿐만 아니라 어떤 수행도 계율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증득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닦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야 나중에는 모든 분별심이 끊어지고 확철대오하는 것입

니. 한국불교가 더욱 발전하려면 항상 하시는 생활수행과 공부하는 승가의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의 일 불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절법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스님네들은 공부는 하려고 하지않고 먹는데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잘먹으려고 하면 할수록 공부는 잘되지 않는 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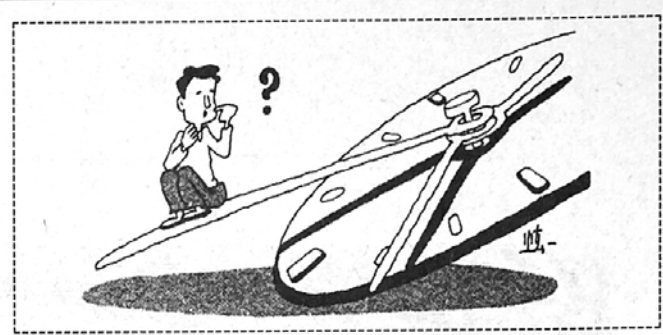
“주린가운데서 도가 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부른 상태에서 무슨 도를 찾고 웅맹정진 할 수 있겠습니까. 잘먹고 편안한 가운데서 공부하겠다는 것은 다 헛소리고 망상입니다.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온갖 망상은 불처럼 일어나고 편안해지려는 욕망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끓는 쇠물을 먹을지언정 절대로 한톨의 쌀도 먹지 말라”고 제자나 스님네들만 보면 항상 강조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신도들의 시주헌액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수 많은 신도들의 뜻(소원)이 가득 담긴 공양기에 공부하지 않고 어찌 함부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출가수행자는 항상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야 부처님, 부모님, 신도들의 은혜를 갚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좋은 스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라, 고려, 이조 때 스님들이 아직 열반에 들지 않고 지금도 선정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님들이 혼탁한 사회와 증생교회를 위해 다시 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효스님은 미륵불로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모든 증생에게 회방이 되어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원효스님과 같은 분이 바로 미륵불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가 잘못되면 나라가 흔들려 망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정신이 혼



과학에서는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 하려는 작업을 한다. 그 중에서 사회 과학은 그 대상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사회 과학 그 명제가 틀림없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인가도 모르지만, 그것도 단지 근사적으로만 참일 뿐이다. 그 명제가 결코 진리일 수는 없다. 더구나 그것은

과학에서는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 하려는 작업을 한다. 그 중에서 사회 과학은 그 대상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사회 과학 그 명제가 틀림없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인가도 모르지만, 그것도 단지 근사적으로만 참일 뿐이다. 그 명제가 결코 진리일 수는 없다. 더구나 그것은

## 계율지키지 않으면 웅맹정진도 아무 소용 없어 깨달음을 얻었다해도 수행멈추면 번뇌다시 꿈틀

물중이는 호랑이를 만나자마자 또다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수행자는 이와같은 상황에서 더욱 정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번뇌소멸을 위해 웅맹정진 하다보면 결국에는 더 이상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곳에 이르러 수심길되는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이때 바로 모든 업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다보면 바다에서 그물로 큰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허공 속에 떠돌았던 밝은 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오르는 순간 성난 검은소는 욕심없고 순한 하얀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서도 끊임 없이 수행하다보면 나중에는 소란 자체가 없어지고 별과 달이 비치게 되는데 그 때가 바로 일체망상이 다 소멸되고 오직 마음공부에만 일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거저서 바로 마음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리를 증득했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모두 수행이 다 끝난 것이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제일이다. 이제는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50여년동안 한국불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지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승려의 교육과 자질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을 승가의 현실을 보면 머리만 깎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알고 공부할 줄 모릅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법랍에 상관없이 모두 어른이고 큰스님 노릇을 하려 합니다. 법랍도 속이고 승적도 속이고 큰 깨달음을 얻은 스님처럼 살법을 하는 등 마치 수십년간 공부한 스님네들처럼 행동을 하려 합니다.

수행자라면 항상 탐욕을 버리고 결승하고 하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요즘은 스님네들을 보면 할정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위계질서가 없습니다.

사회란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가에도 예의도덕이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래 승가란 것이 속가의 나이로 질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으로 하기 때문에 출가승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

도 걸잡을 수 없이 강해지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은사스님인 한암스님께서는 무섭게 공부하셨지요. 요즘은 옛날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섭게 공부를 시키는 스님도 없고, 공부를 할려고 하는 스님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승가의 수행 풍토가 많이 헤이해졌습니다.

한암스님께서는 입버릇처럼 ‘공부해라. 공이 공부 안하면 큰죄를 짓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특히 한암스님은 ‘수행자가

“배부르면 부를수록 온갖 망상은 불처럼 일어나고 편안하면 편할수록 욕망은 건잡을 수 없어 공부하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들린다면 어찌 나라가 성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은 이 이치를 절대로 잊지 말고 더욱더 정진해 혼탁한 사회를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불교는 자기를 찾고자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자기를 알려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올바르게 밝히게 되면 도의 근원에 합치한 것이고, 이것이 사회와 증생에게 빛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과목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양형진 오직 하나의 진리

그 명제가 틀림없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인가도 모르지만, 그것도 단지 근사적으로만 참일 뿐이다. 그 명제가 결코 진리일 수는 없다. 더구나 그것은

자신이 태양탄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와 그리고 그 위에 살고 있을지 모르는 모든 생명체에 우리 태양의 이야기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흔히 일월성진의 움직임이란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믿고 있지만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수백년 후의 달력까지 만들 수 있지만) 그것도 오직 근사적으로만 참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우주 어디에도 영원히 존재한다거나 영원의 유한한 경험에 그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 ‘태양의 존재’ 등 자연현상은 한계지너 제행무상·제법무아 연기법으로 밝혀

은대 지방에 사는 우리들에게만 성립되는 자연 현상이다. 일년 내내 여름인 곳도 일년 내내 겨울인 곳도 얼마든지 있다. 우리의 유한한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명제가 보편적일 수 없다는 보기가 될 것이다.

사계절의 순환보다 보편적이며 율법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명제이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일 수는 없다.

태양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구성비로 미루어 볼 때 태양의 나이는 지금 약 50 억년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 50 억년 정도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50억년 동안 태양계의 구조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50억년 후의 어느 날 태양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의 그 어느 곳에서도 태양의 모습은 사라지고 만다. 이와 함께 태양에서 오던 모든 복사에너지도 공급되지 않아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그 지위를 감추게 될 것이다.

기껏 백여년이라는 생명을 영위하며, 지구 상에 존재하던 기간 자체가 이상 백만년에 불과한 인간의 입장에서 볼때

법칙들도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진다.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에서 성립하는 즉 한계를 가지지 않는 자연 법칙이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의 현상에서 시작하여 자연의 대상, 자연의 법칙에 이르러 가지 하나 하나 다 부정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부정하기 어려운 단 하나의 예외가 존재한다. 아무리 부정하고 부정하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삼라만상과 그에 관한 모든 원리가 오직 연기에 의해 성립한다는 것 뿐이다. 오로지 연기 법만이 우리의 우주 전체가 공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성립하는 궁극적인 유일한 절대 진리이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크게 의심하고 가르친다. 이를 대의심이라 한다.

절정하게 의심함으로써 연기법으로서의 우주적 진리 곧 불법이 드러나게 된다. 오로지 연기이므로 제행무상이고 제법무아(諸法無我)이다. 데카르트 철학의 출발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였다면, 불교도의 죄명명은 “나는 크게 의심한다. 그러므로 오직 연기일 뿐이다” 일러진 모른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성아출판 TEL: 778-6626-7 FAX: 778-6628

#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든 조약돌

42장경은 불교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법입니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장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7기에 대한 오묘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내가 도를 지키려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터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단일 담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 본문 중에서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 라스너워 감역 / 황관우 · 이광욱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7,500원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중국명문 한의대학

# 박사과정 연수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침구·기공)

■기 간: 8박 9일

■수료증: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인 원: 20명 이내

■출발일: 1995년 10월 19일(목요일)

■남경중의약 대학  
중국남경 660-7129

■문의처: 자매대학-삼화불교대학

Tel: (02)511-2026, 2027, 2028  
Fax: (02)511-1080

정신 육체를 위하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원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 선관단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재산적 비용: 기아 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염분·자연담·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염불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켈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가이드 북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식으로 효과보는 병

-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등 신경성 제증상
- 암, 중풍, 혈압, 당뇨,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
- 위장병, 변비, 간장병, 천식, 디스크, 신경통
- 축농증, 피부병, 부인병, 성병, 약물중독 외

■수련장: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용림선원  
■안 내: ☎ (0593) 34-1115-6